

詞作에서 用典의 효용성**

—豪放派詞人 詞作爲主

林承坯*

◁ 목 차 ▷

- | | |
|---------------|---------------|
| I. 緒言 | 3. 議論의 根據를 爲해 |
| II. 用典의 效用性 | 4. 典雅한 表現을 爲해 |
| 1. 經濟的 表現을 爲해 | III. 結語 |
| 2. 含蓄的 表現을 爲해 | |

I. 緒言

用典이란 典故를 인용하여 작품 속에서 作家自身的 思想感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修辭技巧으로써 前인들이 사용했던 詩句나 文句를 인용하는 것 외에 과거의 인물과 연관된 故事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아 用事라고도 부른다. 劉勰의 《文心雕龍·事類篇》에 「용전이란 대개 문장 밖의 사실에 근거하여 比論하고, 옛것을 인용하여 현재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¹⁾ 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를 보면 중국문학에서 오래 전부터 용전기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用典은 唐·五代와 宋初의 詞作에는 前代 詩人들의 詩句를 인용하는 정도의 제한적 사용에 그쳤으나, 蘇軾에 이르러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소식의 뒤를 이은 辛棄疾이 용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前代의 詩·散文 등의 語句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經·史·子·集의 온갖 語句 및 故事를 사용하였다. 때문에 詞評家들은 신기질의 작품을 평할 때 용전의 우수함을 칭찬하면서도 일부는 「掉書袋」²⁾라 하며

* 원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1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1) 劉勰 《文心雕龍·事類第三十八》: 「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証今者也.」《文心雕龍注釋》台北, 里仁書局, 1984, 705쪽

2) 掉書袋: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기 위하여 典故 등 어려운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 劉克莊 《後村詩話》: 「陸游와 辛棄疾은 부드럽고 화려함을 일소하고 문장의 수식을 일삼지 않으니 아주 뛰어나다. 그러나 때때로 「掉書袋」의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放翁·稼軒, 一掃纖艷, 不事斧鑿, 高則高矣, 但時時掉書袋, 要是一癖.)」唐圭璋 《詞話叢編》, 台灣 廣文書局, 1981년, 3774쪽.

용전의 과다함을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 후로 姜夔·吳文英 등이 南宋 詞家 중에서 故事를 적절히 운용한 용전의 명수라 할 수 있고, 南宋 末年의 遺民詞家 중 王沂孫도 적절한 典故의 운용을 통하여 망해 가는 나라를 생각하는 근심과 설움을 그의 詞作에 표현하였다.

用典運用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품에 자연스럽게 잘 융화되면 장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작가들이 용전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인데, 본 논문에서는 用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多用으로 용전기교가 그들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 蘇軾과 辛棄疾의 작품 중에서 용전이 성공적으로 운용된 예를 들어가며 그 효용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用典의 效用性

1. 經濟的 表現을 위해

五言 七言 등 字數의 제한이 비교적 엄격한 詩보다는 자유스럽지만 詩와 같은 韻文으로 字數의 제한도 있고 曲調에 맞춰 불러야하는 詞를 창작함에 있어 작가 자신의 복잡한 사상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용전을 이용하면 수많은 분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을 몇 구절로 압축된 詞句에 담을 수 있다. 原典의 분량이 수십·수백 자가 되는 내용을 몇 자로써 표현하기도 하고, 몇 장 분량의 故事 내용을 몇 구절로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문제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작품에 융화되느냐 인데, 역대 詞人 중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용전운용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辛棄疾의 〈水調歌頭·送楊民瞻〉를 예로 들어 본다:

日月如磨蟻³⁾,
萬事且浮休。
君看櫓外江水，
滾滾自東流。
風雨飄泉夜半，

세월이 마치 맷돌 위를 맴도는 개미 같으니,
만사는 단지 살고 죽는 것에 불과한 것일.
그대는 보는가 처마너머 강물이,
도도히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한 밤중 飄泉에 비바람 몰아치고,

3) 磨蟻 : 세월이 유수와 같이 떠돌음을 형용한 말

花草雪樓春到，
老子已菟裘⁴⁾。
歲晚問無恙，
歸計橋千頭。

夢遶環，
歌〈彈鋏〉，
賦〈登樓〉，
黃鶴白酒，
君去村社一番秋。
長劍倚天誰問，
夷甫⁵⁾諸人堪笑，
西北有神州。
此事君自了，
千古一扁舟。

雪樓에 드리운 화초가 봄이 왔음을 알리니,
이 늙은이는 이미 은거한 사람이라네.
한해가 저물어 갈 때 그 누가 안부를 물으면,
歸隱하여 천 그루 굴나무를 심었다고 말하리라.

고향에 돌아 가고픈 꿈 계속되니,
〈彈鋏〉을 부르고,
〈登樓〉를 읊어보네.
黃鶴을 잡고 白酒를 따르며,
그대는 고향가서 가을제사 지내겠지.
하늘까지 닿는 장검 누구에게 물어보나,
夷甫 같은 사람들은 비웃을진 모르지만,
西北에는 아직도 미수복된 神州 땅이 있다네.
증원회복의 대업을 그대가 이룬 뒤에,
范蠡처럼 扁舟에 몸을 싣고 귀은하게나.

이 작품은 辛棄疾이 帶湖에서 은거할 때 고향에 돌아가는 友人 楊民瞻을 전충하며 지은 詞作으로 北方故土의 수복지연으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와 연계하여 壯志를 이루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前線에 은거하여 지내는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증원회복의 대업을 이룬 뒤에 귀은하라고 勉勵하고 있다.

「歌〈彈鋏〉」句는 春秋戰國時代 齊나라의 孟嘗君 집에 門客으로 있던 馮諼이 주인에게 重視 받기 위해 劍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러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故事⁶⁾를 인용했으며, 「賦〈登樓〉」句는 建安詩人 王粲이 天下大亂으로 장안이 혼란에 빠지자 荊州(지금의 湖北省)로 몸을 피해 劉表에게 의지했을 때 〈登樓賦〉를 지어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했다는 故事⁷⁾를 인

- 4) 菟裘: 山東省 泗水縣 경내에 있는 地名. '은거하다'는 뜻의 동사로 쓰임.
- 5) 夷甫: 西晉대 재상을 역임한 王衍의 字. 清談을 좋아하여 政務를 돌보지 않아 흉노가 침입했을 때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중원이 함락되고 西晉이 멸망하였음.
- 6) 《戰國策·齊策》에 보면: 「馮諼이 맹상군의 문객으로 있었는데, 처음에 중시를 받지 못하자 그는 기둥에 기대어 검을 뿜기면서: 「장검아 돌아갈거나, 먹울 생선이 없구나!」라고 노래했다. 후에 계속해서 검을 뿜기면서 「나가려해도 마차가 없구나, 「가정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노래했다. 맹상군이 듣고난 후 귀한 손님으로 대우했다. 후에 그는 기발한 계책으로 여러차례 큰 공을 세워 맹상군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줬다. (馮諼客於孟嘗君, 起初不被重視, 他便倚柱彈其劍歌曰: 「長鋏歸來乎, 食無魚!」繼而又彈鋏歌「出無車,」和「無以爲家,」孟嘗君聽到後, 待爲上賓. 後來, 他爲鞏固孟嘗君的統治地位出謀劃策, 屢建奇功.)」薛祥生, 《稼軒詞選注》, 台灣, 崑崙書社, 1985, 26쪽 참조
- 7) 《文選》王粲〈登樓賦〉五臣注: 「동탁의 난 때, 왕찬은 난을 피해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의지했다. 강릉의 성루에 올랐을 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일어 이 작품을 지었는데, 진퇴에 대한

용했다.

彈鋏과 登樓는 양민첨이 풍훤과 왕찬처럼 오랫동안 유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어렵게 생활하며 지냈지만 훗날 국가를 위해 공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수 많은 분량의 풍훤과 왕찬의 고사 내용을 二句 단 여섯 字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마지막 「千古一扁舟」句 역시 范蠡가 공을 세우고도 강호로 은거한 고사⁸⁾를 인용하여 楊民瞻에게 공을 세우고 은거할 것을 勉勵하는 말로 수 많은 분량의 범려와 관련된 故事 內容을 다섯 字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2. 含蓄的 表現을 위해

용전은 修辭學的으로는 比喻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借古喻今」형식으로 過去事를 빌어 現在事를 말하며, 전고를 인용하여 자신의 심경을 은연 중 표출하는 것은 비유와 같은 表現技巧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전 자체가 비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直接的인 표현보다 婉曲·含蓄的인 間接的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蘇軾의 〈江城子·密州出獵〉를 예로 들어본다:

老夫聊發少年狂。
左牽黃，
右擎蒼。
錦帽貂裘，
千騎卷平岡。
爲報傾城隨太守，
親射虎，
看孫郎。

늙은이 잠시 애들 재기가 일어,
왼 손으론 황구잡고,
오른 팔엔 참매 앉히고,
비단 모자에 모피옷 입고,
수많은 수행원 이끌고 산등성이에 나갔다.
수행하는 자들, 고을 백성들에게 알렸으면,
태수가 친히 맹호를 쏘아 잡는다고,
마치 왕년의 손권처럼.

酒酣胸胆尙開張。
鬣微霜，

거나하게 한잔하니 포부와 담력 생기는데,
귀밑머리 살짝 세어 하얗지만,

두려운 마음을 서술했다. (時董卓作亂，仲宜避難荊州倚劉表，遂登江陵城樓，因懷歸而有此作，述其進退危懼之情也。)，鄧廣銘，〈稼軒詞編年箋注〉，台灣，華正書局，1989，27쪽 재인용

- 8) 「〈史記·越王勾踐傳〉과 〈越絕書〉등 문헌을 보면, 범려가 월왕 구천을 보좌하여 오나라를 멸한 후에 「(월왕과는) 늙은 명성으로 오래 같이 지내기가 어렵다」고 여겨, 곧 간단한 보석등을 수습하여 서서를 데리고 五胡에 배를 띄우고 떠났다. (〈史記·越王勾踐傳〉和〈越絕書〉等文獻記載，范蠡輔佐越王勾踐滅吳以後，以爲「大名之下，難以久居」，便收拾輕寶珠玉，携帶西施，泛舟五胡而去。) 薛祥生，〈稼軒詞選注〉，대만，崑崙書社，1985，22쪽 참조

又何妨,	무슨 상관 있겠는가.
持節雲中,	符節 ⁹⁾ 들고 雲中에 왔던
何日遣馮唐?	馮唐은 그 언젠가 보내오나?
會挽雕弓如滿月,	등근 滿月처럼 활 힘껏 끌어당겨,
西北望,	서북하늘 바라보며,
射天狼.	天狼 향해 쏘아본다.

이 작품은 宋·神宗·熙寧 8년에 蘇軾이 密州刺史로 있을 때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오던 길에 사냥을 하면서 지은 詞作으로 過去의 故事를 인용하여 자신의 심경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上片「親射虎, 看孫郎」句는 孫權의 고사¹⁰⁾를 인용했는데, 慶亭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서 호랑이를 잡은 손권의 용맹을 자신과 비유하여 아직 젊은이 못지않은 용맹스런 기개와 담력은 살아있지만 중용되지 못하여 국가를 위해 자신의 雄志를 충분히 펼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했다. 下片「持節雲中, 何日遣馮唐」句는 漢·文帝 때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雲中太守 魏尙을 위해 상소하여 죄를 면하게 해주고 赦免을 명하는 符節을 직접 가지고 雲中에 파견된 馮唐의 故事¹¹⁾를 인용했는데, 작자는 魏尙을 자신에 비교하여 朝廷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소식은 이 작품에서 두 개의 典故를 사용함으로써 젊은 사람 못지않은 호방한 기개가 살아있지만 중용되지 못하여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9) 명령을 전달하는 위임장

10) 《三國志(卷四十七)·吳書二·孫權傳》: 「23년 10월에, 손권이 吳에 이르러, 慶亭에서 친히 말을타고 호랑이를 쫓는데, 말이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어, 손권이 쌍지창을 던지니, 호랑이는 결국 공격을 포기했다. 따르던 張世가 창으로 공격해 잡았다. (二十三年十月, 權將如吳, 親乘馬射虎於慶亭, 馬爲虎所傷, 權投以雙戟, 虎卻廢, 常從張世, 擊以戈, 獲之。)」 楊家駱主編, 《三國志》, 대만, 鼎文書局, 1983, 300쪽

11) 「《史記·馮唐傳》을 보면 『漢文帝 때 雲中太守인 魏尙은 병졸들을 아끼고 관리들을 우대했는데, 흉노는 멀리 비켜서서 강히 운중의 변방을 넘보지 못했다. 한번은 흉노가 침입한 적이 있는데, 魏尙이 친히 군마를 이끌고 나가 격퇴하고 수 많은 적을 죽였다. 후에 戰功을 보고 할 때 문전에 기재된 사망한 적군의 숫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여, 정부는 그를 체포하여 징역형에 처했다. 馮唐은 변방의 장수가 전공을 세웠으니 웅당 상을 내려야지 처벌은 가혹하다 느껴, 漢文帝에게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말했다. 이에 漢文帝는 馮唐에게 부절을 휴대하고 가서 魏尙의 죄를 사해주게 했고, 계속해서 雲中太守직을 맡게 했으며, 아울러 馮唐을 車騎都尉에 임명했다.』 (《史記·馮唐傳》觀『漢文帝時, 魏尙爲雲中太守, 他愛惜士卒, 優待軍吏, 匈奴遠避, 不敢靠攏雲中的邊塞, 一度匈奴曾經侵入, 魏尙親率車騎阻擊, 所殺甚衆, 後因報功時文件上所載殺敵的數字與實際不符(少了六個首級), 政府便把他逮捕起來判處徒刑, 馮唐認爲邊將有戰功应当重賞, 這種處罰太重, 他率直地向漢文帝陳述了自己的意見, 漢文帝便指派馮唐持節(帶著伝達命令的符節)去赦免了魏尙的罪, 仍舊使他担任雲中太守, 並且任命馮唐爲車騎都尉。』) 張淑瓊, 《唐宋詞新賞(6)蘇軾》, 台灣, 地球出版社, 1990, 169쪽 참조

이와 같이 옛 고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남송 辛棄疾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신기질의 <永遇樂·京口北固亭懷古>을 예로 들어보자:

千古江山，	천고 강산 의구하나，
英雄無覓，	찾을 길 없네，
孫仲謀處，	영웅 손권의 자취를，
舞榭歌台，	춤추고 노래하던 樓台와，
風流總被，	풍류도 모두 다，
雨打風吹去，	비바람 맞아 사라졌네，
斜陽草樹，	석양 빛 받는 초목들，
尋常巷陌，	평범한 마을 길，
人道寄奴曾住，	사람들은 말한다네， 전에 寄奴 ¹²⁾ 가 살던 곳이라고，
想當年·金戈鐵馬，	당시를 생각컨데， 정예 병마를 몰던，
氣吞萬里如虎，	그 기세는 만리를 삼키는 범과 같았지，

元嘉草草，	元嘉 ¹³⁾ 에 경솔히，
封狼居胥，	(王玄謨를) 狼居胥 ¹⁴⁾ 에 封하려 했으나，
贏得倉皇北顧，	倉皇히 북녘 돌아보는 결과 되었네，
四十三年，	南歸한지 四十三年 흘렀건만，
望中猶記·烽火揚州路，	바라보면 아직도 생생한 烽火 타오르던 揚州 길，
可堪回首，	어찌 머리 돌려 보나，
仏狸祠下，	仏狸祠쪽，
一片神鴉社鼓，	까마귀 울음소리 북소리 가득한 그곳을，
憑誰問·廉頗老矣，	어느 누가 물어 볼까? 廉頗 늙었지만，
尙能飯否?	아직 밥 잘먹는지?

이 작품은 辛棄疾이 66세 때인 宋·寧宗·開禧元年(1205)에 鎮江知府로 있을 때 지은 詞作으로, 京口(지금의 江蘇省 鎮江)의 北固亭에 올라 멀리 증권을 바라 보며 國事를 걱정하며 역사적으로 京口와 관련이 있는 三國·孫權과 南朝·劉裕의 업적을 회고하고, 趙王이 老年의 廉頗를 다시 기용해 보고자 使臣을 보내 그의 건강을 확인해 본 故事를 인용하면서, 비록 노년이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호방한 기개가 살아있는데 중용되지 못하여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안타까

12) 宋 武帝 劉裕

13) 南朝 宋文帝의 年号

14) 狼居胥: 山名, 지금의 蒙古. 漢의 霍去病이 匈奴에 승리하여 功을 세운 후 狼居胥에 封해졌음.

운 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上片에서는 京口를 뒤편의 수도로 정한 뒤 북방에서 침범한 曹操의 군대를 제압하여 국가를 보위한 孫權과 京口에서 起兵하여 북벌을 감행하여 霸業을 이룬 劉裕를 회고했는데, 작자는 이들에 대한 흠모의 뜻을 드러내며 자신도 北方故土를 회복하고 싶은 壯志는 넘쳐흐르나 중용되지 못하여 功業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下片「憑誰問·廉頗老矣，尙能飯否?」句는 趙王이 老年의 廉頗를 다시 기용해 보고자 使臣을 보내 그의 건강을 확인해 본 故事¹⁵⁾를 인용하여 趙의 명장 廉頗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면서,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青年期의 雄心으로 가득찬 자신을 중용하지 않는 조정에 대한 원망을 함축적으로 표출했다.

3. 議論의 根據를 위해

일반적으로 文人들의 詞作은 抒情과 寫景을 표현하는 작품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작가들은 功名과 壯志를 읊고 時事에 대한 議論이나 인생에 대한 哲理를 담은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작가로 蘇軾과 辛棄疾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詞를 「以詩爲詞」나 「以文爲詞」라고 평하며 詞의 내용을 해방했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詞人들이 어떤 문제를 논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할 때 왕왕 교훈이 되는 유사한 상황의 옛 故事를 인용하여 작품 속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자기 주장을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詞人들은 議論의 근거로 종종 用典을 사용하기도 한다.

신기질의 〈摸魚兒·淳熙己亥，自湖北漕移湖南，同官王正之置酒小山亭，爲賦〉의 下片을 예로 들어본다:

長門事，
準擬佳期又誤，

長門宮의 일，
분명 좋은 기약 또 어긋나겠지，

15) 《史記·廉頗藺相如傳》에 보면 「염파는 조나라 명장으로 만년에 모함을 받아 위나라로 달아났다. 후에 조왕이 염파를 기용하고 싶어 우선 그가 아직 건강한지 확인하러 사신을 보냈다. 염파는 그 앞에서 한기에 쌀 한 말과 고기 10근을 먹고, 갑옷을 입고 말을 타며, 아직 능히 작전을 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그러나 사신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조왕에게 보고하길: 「저와 잠시 있는 동안 세 번이나 대변을 봤다.」라 하여 조왕은 마침내 기용하지 않았다. (廉頗，趙國名將，晚年遭人讒害而出奔魏國，後趙王欲起用廉頗，先遣使者詢其健壯與否，廉頗當面一飯斗米肉十斤，并被甲上馬，以示尙能作戰，但使臣受賄而謊報趙王說: 「與臣坐頓之，三遺矢矣。」，趙王遂罷。) 朱德才，《辛棄疾詞選》，人民文學出版社，北京，1993，221쪽 참조

蛾眉曾有人妒。	미녀를 질투하는 사람 있으니.
千金縱買相如賦。	설령千금을 주고 相如의 賦를 산다해도,
脈脈此情誰訴? 말 못하는 이 마음 누구에게 호소하나.	
君莫舞!	그대들(질투하는 자들)이여 춤추지 마라!
君不見	그대들은 보지 못했는가,
玉環飛燕皆塵土。	玉環·飛燕 모두 塵土된 것을.
閒愁最苦,	하릴없는 근심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休去倚危闌,	높은 난간에 기대어 있지마라,
斜陽正在,	석양이 바로
煙柳斷腸處。	안개 속 버드나무 사람 애끓게 하는 곳에 있으니.

이 작품은 淳熙六年(1179) 신기질의 나이 47세 때의 詞作이다. 이 때는 신기질이 紹興三十二年(1162) 淮水를 건너 남송으로 南渡한지 17년이 되던 때로, 계속해서 주장했던 中原恢復·抗金鬭爭 등의 정책이 시종 남송 조정의 權奸들의 오해와 시기로 인해 배척되고, 결국에는 地方의 閒職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湖北에서 북쪽 戰線과 거리가 더 먼 湖南으로 발령이 난 작자로서는 평소에 품었던 北方故土 회복의 壯志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져 悲憤과 挫折感은 한층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의 主和派 권간들에 대한 울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用典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며 그 들을 질책하면서 時局에 대한 우려와 자신이 중용되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君莫舞! 君不見, 玉環飛燕皆塵土。」三句는 唐·玄宗의 총애를 받다 안록산의 난 때 목메어 죽은 楊貴妃와 漢·成帝의 황후로 총애를 받다 후에 庶民으로 내침을 받고 자살한 趙飛燕의 歷史故事를 인용하여 당시 南宋 조정에서 권세를 쥐고 忠臣을 시기하고 배척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主和派 權奸들의 말로가 불행할 것이라는 根據로 사용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 앞 절에서 언급한 신기질의 〈永遇樂·京口北固亭懷古〉下片的「元嘉草草, 封狼居胥, 贏得倉皇北顧」三句에서도 宋·文帝가 元嘉二十七年(450)에 王玄謨의 말을 듣고 西漢의 霍去病이 匈奴를 치고 북벌에 성공한 것처럼 될거라 믿으며 충분한 준비 없이 경솔히 북벌을 감행하다 北魏에 大敗한 歷史的 事實¹⁶⁾을 근거

16) <宋書·王玄謨傳>에 보면: 「송문제가 일찍이 왕현모의 용병술에 대해 듣고 랑거서에 봉할 뜻이 있다고 했다. 후에 왕현모가 북벌을 감행했으나 대패하고 돌아 왔다. (宋文帝曾謂聞玄謨論兵, 使人有封狼居胥意, 後命王玄謨北伐, 大敗而歸.)」汪中, <宋詞三百首>, 三民書局, 台灣, 1983, 256쪽 참조

로 들어 자신의 意見을 받아들이지 않고 開禧二年(1206) 북벌을 위해 出兵하여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開禧三年(1207) 宋金和議를 맺은 당시 宋·寧宗과 朝廷의 權臣 韓侂胄의 경솔한 정책결정을 비판하는 議論根據로 삼는 동시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 증용되지 못하여 壯志를 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4. 典雅한 표현을 위해

晚唐·五代 이래로 貴族이나 官僚들 사이에서 풍요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읊어 내던 詞에서 운용되는 言語는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修飾의인 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語彙나 語句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親戚이나 親友 등 知人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에 그들과 인간적인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분위기를 띄우고 주홍을 돋우기 위해 世俗을 쫓기도 하며 즐기는데, 이러한 세속을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세속을 표현하기 쉬운 속된 표현을 피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표현을 하기 위해 때로는 典故를 運用하기도 한다. 兩宋 詞人 중에서 이러한 표현기교에 비교적 능숙한 蘇軾의 작품 하나를 예로 들어 보자:

〈減字木蘭花〉

- 秘閣《古笑林》云：「晉元帝生子，宴百官賜東帛，殷羨謝曰：『臣等無功受賞』，帝曰：『此事豈用卿有功乎』，同舍每以爲笑。」余過吳興，而李公擇適生子，三日會客，求歌辭，乃爲作此詞戲之，舉坐絕倒。- (秘閣의 《古笑林》에, 「晉·元帝가 아들을 낳아서 百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비단을 하사했다. 殷羨이 감사하면서 말하기를：「신들은 아무런 공도 없이 상을 받습니다」라고 하니, 元帝가 말하기를：「이 일을 어찌 卿에게 공이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여, 동료들이 늘 우스개로 삼았다」라고 했다. 내가 吳興을 지날 때, 李公擇이 마침 아들을 낳아 3일만에 손님을 모아놓고 歌辭를 구하기에 재미로 이 詞를 지으니 座客들이 모두 포복절도했다.)

惟熊佳夢，
釋氏老君親抱送。
壯氣橫秋，
未滿三朝已食牛。

꿈 꿈이 길몽인지,
釋迦와老子께서 친히 안고 오셨네.
장대한 기운 가을 하늘에 뻗치고,
사흘도 채 안 되어 이미 소를 잡아 먹네.

犀鏡玉果，
利市平分沾四坐。
多謝無功，

무소 빨 돈과 맛 좋은 玉果 차려 놓고,
祝儀를 좌객에게 골고루 나눠 주네.
공도 없이 상 받음에 감사하지만,

此事如何著得儂.

이 일해야 어찌 내가 끼어들리오.

題序에서 말했듯이 熙寧七年(1074)에 친구 李公擇의 득남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즐겁게 하고 주인 李公擇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古笑林》의 일화를 빌어 농담조로 쓴 詞作이다. 꿈 꿈을 꾸면 득남을 한다는 《詩經·小雅》의 〈斯干〉편¹⁷⁾을 인용하여 득남을 축하하고, 徐卿의 두 아들을 과장되게 칭찬하는 내용의 杜甫의 〈徐卿二子歌〉¹⁸⁾를 인용하여 갓난아기의 튼튼함을 과장하여 추켜줌으로서 李公擇을 기쁘게 하고, 작품 말미에 해학적 내용인 秘閣의 《古笑林》을 인용하여 좌객들을 즐겁게 하고 宴席의 분위기를 한결 흥겹게 했다.

작자는 이와같이 자칫 속된 느낌을 줄 수 있는 世俗을 詞作에 표현하면서 몇 개의 典故를 절묘하게 사용함으로써 典雅한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Ⅲ. 結語

일반적으로 용전의 효용성은 명확하게 어느 한 가지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 논문에서 분류해 놓은 것처럼 단정적 분류가 무리일 수도 있지만 典故의 運用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효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수식·수백 자가 되는 原典 혹은 복잡한 故事 내용을 몇 字내지는 몇 구절의 경제적 표현으로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둘째 「借古喻今」형식으로 過去事를 빌어 現在事를 말하고 典故를 인용하여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이고 함축적으로 표출할 수 있으며, 셋째 功名과 壯志를 읊고 時事에 대한 議論이나 인생의 哲理을 詞作에 담고자 할 때 의론의 근거로 용전을 사용하기도 하며, 넷째 世俗을 표현하기 쉬운 속된 표현을 피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표현을 하기 위해 때로는 典故를 運用하기도 한다.

17) 《詩經·小雅·斯干》: 「꿈을 해몽하는 관리가 추측하길 꿈 꿈을 꾸면 아들을 낳을 길조라 했다. (大人占之, 維熊維羆, 男人之祥.)」, 屈万里, 《詩經詮釋》, 聯經出版事業公司, 台灣, 1983, 340쪽

18) 〈徐卿二子歌〉: 「서경의 두 아들은 매우 특출났으니, 길몽에 감응해서 언달아 태어났네. 공자와 석가께서 친히 안아 보내셨는지, 모두가 천상의 기린아라네. 아홉 살 배기 큰 애는 안색이 맑아, 가을 물 같은 안색에 빠는 옥 같네. 다섯 살 배기 작은 애는 기운이 소를 잡아 먹을 듯하여, 만당의 빈객들 모두 고개를 돌려 보네. (徐卿二子生絕奇, 感応吉夢相追隨, 孔子釋氏親抱送, 盡是天上麒麟兒, 大兒九齡色清澈, 秋水爲神玉爲骨, 小兒五歲氣食牛, 滿堂賓客皆回頭.)」

용전에는 이상과 같은 효용이 있으나 실제 작품에서 성공적으로 용전을 운용하
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용전의 운용이 晦澁하거나 誇大하거나 무미건조하게 사
용되면 이는 오히려 병폐가 될 수도 있다. <寒廳詩話>에 보면:

「시를 창작할 때 고사의 사용은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높이 여기는데, 옛
사람들도 말하기를 고사의 사용은 사용하지 않은 듯 하라고 했다. (作詩用故事, 以
不露痕迹爲高, 昔人所謂使事如不使也.)」¹⁹⁾

라고 했고, <西清詩話>에 보면:

「시를 창작할 때 故事의 운용은 禪家의 말과 같이, 물에 소금을 타면 물을 마신 후
에야 비로소 짠 맛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作詩用事, 要如禪家語, 水中著塩, 飲
水乃知塩味.)」²⁰⁾

라고 했는데, 이 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슴 속에 万卷의 학문을 품고 있더
라도 용전의 사용은 절제가 필요하며 자연스럽게 작품에 융화되어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남지 않아야 작품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새로운 意境을 창조해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金啓華 《全宋詞典故考釋辭典》，吉林文史出版社，中國，1991
唐圭璋 《唐宋詞鑒賞集成》，中華書局，香港，1987
鄧廣銘 《稼軒詞編年箋注》，華正書局，台灣，1989
薛祥生 《稼軒詞選注》，崧高書社，台灣，1985
朱德才 《辛棄疾詞選》，人民文學出版社，北京，1993
張淑瓊 《唐宋詞新賞(6)蘇軾》，地球出版社，台灣，1990
屈万里 《詩經詮釋》，聯經出版事業公司，台灣，1983
汪中 《宋詞三百首》，三民書局，台灣，1983
唐圭璋 《詞話叢編》，廣文書園，台灣，1981

19) 台靜農, 《百種詩話類編》, 芸文印書館, 台灣, 1974, 1779쪽

20) 魏慶之, 《詩人玉屑》, 商務印書館, 台灣, 1960, 122쪽

劉勰《文心雕龍注釋》里仁書局，台灣，1984

魏慶之《詩人玉屑》，商務印書館，台灣，1960

台靜農《百種詩話類編》，藝文印書館，台灣，1974

馬群《論稼軒詞的用典》：《杭州大學學報》第18卷 第2期，中國，1988

【中文提要】

故事的運用，是中國古典文學中頗突兀之現象，亦為文人通行之習性。文人就其現時之經驗和過去之史實作一連接；利用類似或對比之關係，直接或間接·明言或隱言，以表現意旨。恰切的用事，足使文義典雅，旨意豐贍，而造就深刻的藝術效果，予人具體鮮明之影響，產生新的意境。

然而用典在修辭上確有其不可取代的效用。本論文先分析幾首辛棄疾和蘇軾的詞作，將其用典之效用可歸納出以下四點：其一，某些複雜的事情和作意，若欲投入壓縮性的詩句，只能用典來代入。其二，有些事意，本就難於直陳，設若坦率出之，勢必索然無味，甚至貽人笑柄，因此，最好用典來代入。其三，某些忌諱之事，本就很難置評，但實際上不得不有所論議，以為諫靜，只好借助典故，用古諷今。其四，人生天地間，不能沒有親戚和朋友，為了交際應酬，自難免要隨俗，但這些淺俗的事意，欲發為文章，不得不借助於典故的運用，始能見其雅趣。

【主題語】

用典，詞作，蘇軾，辛棄疾